SPOT
ISSUE

16 Apr. 2026

DAOL 다올투자증권

(011210·BUY·140,000원)

현대위아

방산사업 매각 추진, 사업재편 가속화

유지웅
자동차/이차전지 I jwyoo@daolfn.com

● 연 4천억원 매출액 규모의 방산사업 매각 추진

전일 언론을 통해 현대위아의 방산사업 매각 추진 사실이 보도됨. 매각 대상은 주고객사인 현대로템으로, 연말 거래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매각은 자동차부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공작기계 사업 매각에 이어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한 사업 집중도 제고 작업으로 해석됨

현대위아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파편화된 사업부를 통합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음. 방산사업을 제외한 자동차부품 사업의 영업마진은 여전히 2% 수준에 불과하나, 이번 매각을 통해 자산효율성 개선이 가능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현재 동사 PBR은 0.6배 수준으로, 2020년 이후 집중 육성해온 로봇 및 열관리 등 미래사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의견 BUY, 적정주가 14만원을 유지**

● 미래사업 구조로 재편 가속화: 자동차부품/로봇에 집중

현대위아의 연간 매출액은 약 8.5조원 규모이며, 이번 방산사업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약 8조원 규모의 자동차부품 및 미래사업 중심 구조로 재편될 전망임. 회사는 2026~2028년 전략적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투자 방향은 TMS(열관리 시스템)와 산업용 로봇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이번 매각 역시 이러한 투자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열관리 사업은 2025년 약 1천억원 규모에서 2030년 1조원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산업용 로봇 사업 역시 AGV, AMR, 협동로봇 중심으로 현재 연간 1천억원 규모에서 2028년 4천억원 수준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즉, 이번 매각은 단순한 비핵심 자산 처분이 아니라, 성장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중장기 성장축에 자본을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차세대 모멘텀, EV 열관리부분의 재발견 필요

2026년 후반부로 갈수록 동사의 열관리사업의 가치 재평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현재 모듈과 엔진/구동 부품으로 구성된 사업구조상 이익 모멘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그룹사의 기조가 EV판매 강화로 재편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re-rating이 선행될 가능성을 염두 필요. 열관리 부분의 경우, 잠재적으로 현대차그룹 외 타OEM 및 타 application으로 확장성까지 보유해 중장기 성장 스토리의 핵심으로 부상 가능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